

“복지 등한시 하는 종교 설자리 없어”

새 천년을 뛰는 불자 (6)

대구 남구사회복지관 고강호 부장

“복지와 포교는 둘이 아닙니다. 불교도 마음만 먹으면 복지분야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타 종교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쏟아지고 있어 새 천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고강호씨(35·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분야에 일찌감치 눈을 뜬 앞선 일꾼이다.

“21세기는 자선적 일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복지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를 등한시하는 종교는 앞으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활동은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해 회향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 수행이자 불법홍포의 수단이 된다는 고씨는 불교가 변화하는 복지개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북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경상북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일하던 고씨는 공적부조 영역에 한계를 느껴 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당시 대구시내 20여 종합사회복지관 중 불교계에서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 고씨는 병어리 냉가슴 앓듯 불교 복지를 꽃피우려던 평소의 포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봉사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던 지도 스님(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김영무 부장(문경모전복지관)을 만나면서 지역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그 최초의 작업은 96년 문경 모전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맡아 산과역을 한 것. 이어 97년에 상주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을, 98년에는 대구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냈다. 이

모전·냉림·남구복지관 위탁운영에 일등공신 “복지와 포교 둘 아니죠”

는 도청과 성서복지관에서 익힌 그의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남구복지관 개관법회를 봉행하던 날 사회를 맡았습니다. 찬불가를 부르는데 ‘내가 설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당시 12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불교계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것은 지금도 신화로 통하고 있다.

고씨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복지단체와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불자들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님들의 전문적 식견을 배양하는 것은 지속적인 해결과제라고 말한다. 고씨는 이를 위해 직지사처럼 교구본사가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



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 탁노소와 같은 노인전문 보호센터가 들어서고 구정별로 노인종합복지관도 생겨날 것입니다. 인력수요가 크고 포교효과도 지대한만큼 승·재가를 막론하고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MF사태로 후원금은 줄었지만 할 일은 더 많아졌다는 고강호씨는 불교복지가 활성화될 수록 젊은 전문가들을 불교로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본사 제5회 신행수기 시상식

본사가 주최하는 제5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이 1월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돼 대상 강국형씨 등 7명의 수상자가 상패와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와 한마음요전)을 각각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법산스님은 축사에서 “신행수기 공모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불법의 사리가 한알 한알 나오듯 감동적이다”며 “그 사리를 실에 꿰듯 원고지에 써낸 수상자들은 더욱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흥과 관음종 총무원장,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혜철 한국불교 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무인 천태종 총무국장,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등 교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직지사에 김봉률스님 행적비 제막

항일독립운동가 포일당 김봉률스님의 행적비 제막식이 1월 29일 직지사 비석거리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봉률스님의 속가말인 김승자(60)·족자(58) 자매와 스님의 상좌인 일당스님, 중앙총회위원장 법담스님, 직지사 문화사회국장 도진스님, 김건신 대구보훈청장, 정완영 시인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의 입적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제막식에서 김 보훈 청장은 “스님께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자발적인 우국충정의 발로”이라며 “스님의 높으신 뜻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현의집 근로자 공연의 밤

영동포 보현의 집(원장 정념스님)은 1월 27일 영동포·서계동·수송동 보현의 집 입소자를 대상으로 ‘새 천년 맞이 근로자를 위한 공연의 밤’ 행사를 열었다.

양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스님을 비롯 불자가수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원장 정념스님은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공연하여 힘터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와 불교 접목시킬래요”

부산불교신도회 강선태 신임회장



“정법불교를 뿌리로 생활불교의 가치를 뽐내 부산이 자랑하는 깊은 불심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부산불교신도회 정기이사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강선태 회장(60·동의대 한의대 교수)의 포부이다. 강 회장은 그동안 부산불교신도회의 부회장을 맡아오면서 불교계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강 회장은 “성급한 계획수립이나 방향 제시에 앞서 부산불교신도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덕 스님 방문, 교계 실무자 간담회, 신형 단체장들과의 만남 등을 추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새롭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의견수렴 끝나는 대로 기획력 있는 포교 방안, 문화와 불교를 접목시킨 포교, 기복 불교 탈피를 위한 신형 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신심이 깊습니다. 불심 강한 4백만 신도들의 뜻을 집약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부산불교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불교신도회의 발전은 회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불자들의 신심이 집약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강 회장. 앞으로 대구모 행사보다는 신형 위주의 사업으로 신도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한다.

“부산불교신도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아 큰 업보는 짓지 말아야 될텐데”라는 강 회장의 끝말에서 회장직을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값지게 회향하겠다는 다짐이 엿보인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 총지종 종령 추대법회**
특정 대종사가 불교총지종 제7대 종령으로 재 추대돼 15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3층 법당에서 추대법회가 봉행된다.
- 소책자 미술 방문**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2일 원주 소책자 미술과 국립경찰 병원을 방문하고 각각 금일봉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 대구BBS 운영위원장에**
성타 불국사 주지는 1월 31일 열린 대구불교방송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직으로 선임됐다.
- 결사이동기기 감사패 받아**
성각 망운암 주지 스님은 1월 25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정순택 교육감으로부터 결사이동기기 감사패를 받았다.
- 삼군교회 학술공로상 수상**
김중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1일 열린 삼군교회 81주년 대한 독립선언 기념식에서 학술공로상 을 수상했다.
- 이대 의료팀과 네발 봉사**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는 이대 의료봉사단과 함께 12일부터 23일까지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 해명양로원·보육원에 성금**
박준영 청와대 불자회장은 3일 해명양로원과 보육원을 방문,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청불회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펼쳤다.
- 3·1문화상 학술상 수상**
이기홍 동국대 교수(인문사회과학 부문)는 신라 사회사 연구공로가 인정돼 1월 제4회 3·1문화 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덕 총무원장과 헌당

김말환 군순단장은 1월 28일 관문사로 윤덕 천태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2000년 군순단 사업계획을 비롯 군포교에 대해 환담했다.

불전 꽃꽂이 장학생 선발

조양자 예담꽃꽂이 중앙회장은 불전꽃꽂이회 제4기 장학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6개월로 오는 3월 7일 개강한다. 수강료 무료. (02)595-3354

김흥국 장학재단 현관식

김흥국 축구사랑모임회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맨하탄빌딩 1317호에서 김흥국 장학재단 현관식을 한다.

인사

대한불교 법화종 △기회실장=혜륜(대호정사) △사서실장=진하(삼불사) △총무부장=혜암(총화사) △교무부장=덕우(원각사) △재무부장=만각(불암사) △사회부장=관효(총화정사) △감찰부장=양운(운주사) △총무국장=현우(법화사) △교무국장=보련(묘담사) △사회국장=도각(도각사) △감찰국장=도현(도현사) △재무국장=법성(청룡사)

200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불교학과
- 법패과
- 불교미술과

교육 내용

- 1) 불교학과(정규 및 통신생) : 불교학 및 포교 전방
- 2) 법 패 과 : 상주권공(불교전통의식)
- 3) 불교미술과 : 단청·불화·조각·한국건축사·문화재보호법 등.

용 시 자 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 신입생
 -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나) 강원 사립과 이상의 수료자
 - 다) 태고종단 관부의 추천을 받은 자
 - 2)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 가) 정규대학 졸업자 나)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전 영 방 법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1월 17일(월) ~ 2월 26일(토)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전 영 일 자 2000년 2월 27일(일) 10:00~17:00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 7) 반명함판 사진 6매

전 영 료 ₩30,000(불교미술과 ₩40,000)

참 고 사 항

- 가. 승려들의 소양 함양을 위한 내전 및 서예 특강 실시함.
- 나.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게는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 라.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 마. 편입생 용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 바.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원 서 교 부 및 접 수 처

- 가.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 나. 태고종 서울총무원(☎ 745-2030~2)
- 다. 태고종단 각 교구총무원
- 라. 경서원(☎ 733-3346)

☎ 136-0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763-0229, 8536. FAX 764-5883



동방불교대학